

건축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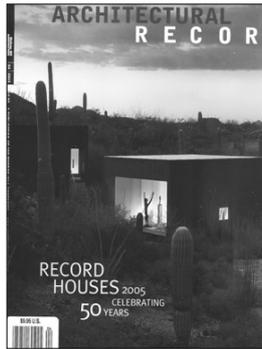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u  
신건축

## Architectural Record

2005년 4월호

1956년부터  
시작된  
Record  
Houses의  
50주년으로,  
올해의 10선  
과 더불어 그  
동안 주택설  
계에서 나타  
난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 2005년도 Record Houses

매년 당해의 우수한 주택설계를 선별하는 Record Houses의 50주년을 맞아 자연을 배경으로 지어진 저택 10선을 꼽았다.

#### Urban Fourth의 일본 후쿠오카 Second Plate

건축사진작가 Kouji Okamoto를 위한 주택과 스튜디오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면의 특



Urban Fourth의 일본 후쿠오카 Second Plate

성이 강조되어 사진과 같은 2차원적 공간감을 연출한다. Urban Fourth의 건축가인 Hiroyuki Arima는 콘크리트와 철판으로 만든 인공대지를 전체 대지 위에 조성함으로써 지하의 넓은 주차공간과 상부의 균일한 데크 영역을 확보했다. 두 건물이 사선 방향으로 놓여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한 데크 공간에는 깊이 5cm의 연못이 삼각형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다. 계단과 외부 구조물들은 2.5~7.5mm 두께의 철판을 접어 만들어졌는데, 이렇듯 희고 얇은 판재들의 복합적인 구성은 일본의 종이접기방식인 오리가미를 연상시킨다. 내부 역시 흰색 대리석을 사용하여 백색으로 처리된 외부의 느낌을 이어가고 있으며, 계단, 벽, 천장 역시 대단히 얇게 처리되어 전체적으로 추상성과 가벼움이 강조되고 있다. 천정고가 5m에 달하는 거실에는 자유로운 형태의 창문이 외부를 담는 프레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건축주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내부의 공간은 벽과 문을 통해 명확한 실로 구분되기보다는 유리 스크린이나 천정과 바닥의 높이 변화에 의해 각 기능군들의 경계가 암시되고 있다.

#### Fearon Hay의 뉴질랜드 Shark Alley House

뉴질랜드에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속하는 Great Barrier 섬에 위치한 Shark Alley House는 가파른 산세가 평지로 전환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위



Fearon Hay의 뉴질랜드 Shark Alley House

치한 주택들이 대부분 그렇듯 주위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내부적으로 풍경을 잘 담아내는 건축을 추구하였는데, Hay는 미스의 “Less is more” 철학을 극대화하여 단순한 공간 조식이 주위 자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통과시키도록 계획하였다. 자연 속에 바닥판, 지붕, 기둥 그리고 몇 개의 벽만이 드러나는 형태는 디테일이 거의 없어 일면 단순해 보이지만, 엽본, 실제로는 바람과 폭풍에 대한 까다로운 구조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주차장, 태양열 패널 등 기능적 요소들을 교묘히 감춘 결과다. 중정에는 옥외 벽난로가 설치된 것이 특이하며, 이 공간을 감싸는 유리문은 바람이 거세게 불 경우 중정 영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평소에는 개방되어 거실, 응접실, 부엌 영역과 융합되도록 의도하고 있다. 단순한 공간 구성과 가변적인 유리문을 통해 자연과 날씨에 따라 다양하고 풍부한 공간적 경험을 이끌어내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 외에 Rick Joy Architects의 미국 애리조나주 Desert Nomad House, Brian MacKay-Lyons Architect의 Nova Scotia Hill House, Marcio Kogan Architect의 브라질 BR House, Pugh+Scarpa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Solar Umbrella House, Steven Holl Architects의 미국 뉴멕시코주 Turbulence House, Fougerson Architecture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Big Sur House, Hiroaki Ohtani의 일본 Layer House, Aldo Celoria의 스위스 Casa Travella 등이 소개되어 있다.

### ■ Record Houses 50년

Architectural Record가 매년 우수한 주택 설계를 선별하기 시작한지 50년이 흘렀다. 문화적,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토양이 바뀔 때 따라 주택 설계와 AR지의 보도 경향 역시 변화하여 왔다.

#### 1950년대

Record Houses를 다루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은 신콜러니얼 양식의 개인 주택이 일반화되어 있던 시기로, 모던한 건축의 거주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던 시기였다. AR지는 Ulrich Franzen의 Franzen House, Jose Luis Sert의 Sert House 등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주택을 소개하고 가족들의 생활과 손님접대가 이루어지는 사진을 중점적으로 게재하여 이들 주택이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양식을 잘 담아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각적 형태를 가진 독립된 벽난로, 일본식 정원, 유리벽, 모던한 가구는 당시 소개된 주택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지역적 맥락과 상관없이 미국 전지역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다.

#### 1960년대

여권신장운동과 반전 시위 등 사회적 가치가 빠르게 변하던 시기로, 건축 이론계에서는 로버트 벤추리의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이 개념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실제적인 건축은 설계에서 실현까지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즉시 반영되지는 못했다. AR지는 모던한 주택 사례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공동주택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기도 했으며, 건축사진은 역동적인 앵글과 함께 주변 사이트를 함께 보여주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Richard Meier와 Charles Gwathmey의 초기 주택 작품들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몇 년 사이에 박스 형태의 건물로부터 형태적, 문화적, 건축적으로 탈피한 과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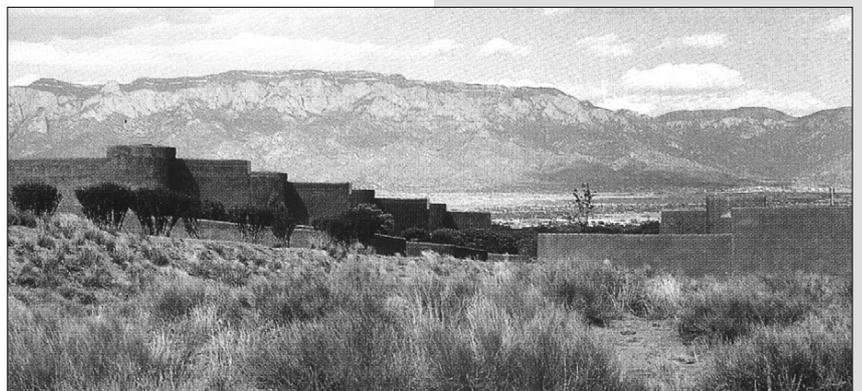
미국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정치적 격동기였던 이 시기에, 모더니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AR지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는 못했다. I.M. Pei, Philip Johnson 등 그로피우스가 교편을 잡았던 하버드 GSD 출신의 건축가들은 주택밖에 설계할 수 없었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전적을 바탕으로 여기에 도입되었던 개념들을 주택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AR지는 지역성에 바탕을 둔 시공기술, 자연재료, 에너지 절약 등 당시의 새로운 건축적 관심사를 반영한 주택을 다루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Anton Predock의 La Luz Town Houses를 꼽을 수 있다.

#### 1980년대

Venturi, Rauch and Scott Brown의 Izenour 주택 등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역사 절충적 실험들이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던 시기였다. 또한 Frank Gehry, Arquitectonica의 주택 작품 등 다양한 양식의 주택을 다룸으로써 당시 건축설계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1990년대 ~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포용력이 확대되던 시기로, 건축에서 역시 매우 다양한



Anton Predock의 La Luz Town Houses

개념과 양식의 건물들이 나타났다. 스테인드 글래스와 유기적 형태가 돋보이는 Bart Prince의 Prince House, 19세기 농장 양식을 빌어온 Tanner Leddy Maytum Stacy의 Martin Residence, 명확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모던한 양식의 Tod Williams Billie Tsien의 뉴욕 타운 하우스, 에너지 보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Georg Driendl의 Solar Tube House 등 서로 다른 개념적, 실제적 토양에서 나온 건축이 Record Houses를 통해 소개되었다. 이는 삶의 양식과 이상이 그만큼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AR지는 앞으로도 당대의 건축과 주거 양식을 대변하고,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 단순히 “디자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담을 수 있는 사례들을 다루어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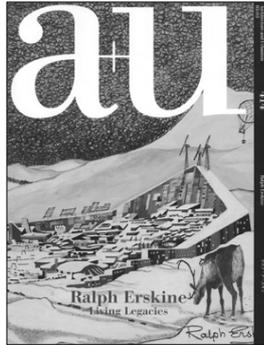
■ 기타

올해의 Pritzker 상 수상자로 Thom Mayne 선정 소식, 주거의 의미와 우수 저택 사례들을 다룬 저서로 Raul Barreneche의 Modern House Three, James Gauer의 The New American Dream: Living Well in Small Homes, Will Jones의 The New Modern House가 소개되어 있다.(번역 / 최원준)

atu

2005년 3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 출신 건축사 랄프 어스킨(Ralph Erskine, 1914~)의 작품세계를 다루고 있다. 어스킨은 1960년대부터 활발한 활동을 보이면서 다원주의적이면서 개인적인 건축세계를 펼쳐왔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그의 건축은 자연과 호흡하고 인간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담아내는 건축의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친환경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건축계에 살아있는 유산으로 전해진다.



랄프 어스킨의 건축

어스킨 건축의 진면모는 현재에도 1963년에 완성된 당시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스웨덴, 도르트닝홀름의 자택과 스튜디오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현재 90대 전반이라는 나이를 넘은 어스킨은 지금도 가족과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며, 이지적이면서 인간미 넘치는 디자인에 대한 변하지 않는 확신을 지니고 있다. 사무소는 현재 사회적이며 명쾌한 비전을 가진 건축에 영감을 받은 젊은 건축가들의 에너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스킨은 인접한 이 사무소와 자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

어스킨의 60년에 걸친 활동의 궤적을 쫓아 가보면 1939년 한 사람의 영국인 건축사가 스웨덴을 목적지로 하여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어스킨은 그 곳에서 머무를 것을 결정하고 그 땅에서 주택, 집합주택, 커뮤니티를 디자인 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하우스'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사람들

이 창조적인 프로세스에 참가하여 생활 속에서 디자인을 살아 숨쉬는 것으로 유지시키는 '홈'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어스킨의 건축사로서의 활동이 지나는 폭 넓은 단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은 단순히 역사화 된 유산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는 역동적인 창조적 과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어스킨이라는 존재의 중요성 - 데니스 샤프 (Dennis Sharp)

랄프 어스킨은 근대건축의 형성과 그 그것의 발전단계였던 제2기 근대건축에서 독특한 역할을 해 내었다. 1960년대에는 팀 텐(Team X)의 회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기적이고 민주적인 서민을 위한 건축에 있어서 몇몇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그 아이디어들이 활짝 꽃피운 것을 목격하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오픈되어 있고 다원주의적이면서도 개인주의적인 건축의 기초가 되었다. 그 중 많은 수는 그의 건축에 녹아들어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인 교육, 치료, 레크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였다. 그는 도르트닝홀름에 친 환경적으로 세워진 자택(1963년)에서 시작하여 스칸디나비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 세워진 대형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택의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해 왔다. 그는 커뮤니티의 문제, 도시생활, 참가형 프로세스와 더불어 독특한 장소의 명료화, 스케일의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소재의 사용 등에 관심을 가져 왔다.

어스킨은 단독주택을 디자인할 때도, 복합적인 커뮤니티의 계획을 세울 때도 지역의 가치관이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시하였다. 도르트닝홀름에 있어서 그는 주택 디자인 전반에 걸쳐 자신의 가족의 주거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세워나갔다. 그 안에는 개개의 기능적인 유니트(주거, 스튜디오, 차고)는 서로 분리되어 중정의 주변에 배치되었다. 그것은 이중의 지붕과 방호적인 벽에 의해 정말로 매서운 스칸디



어스킨의 자택(1963)

나비아의 기후에 견딜 수 있도록 변화된 대저택과 같은 것이다.

수 년 전, 『World Architecture』에서 특집호(1990년 제6호)를 꾸미기 위해 나는 어스킨과 그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가졌다. 우리들은 추운 2월 저녁에 잘 정돈되고 편안한 그의 저택 라운지에서 그의 커리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들었다. 그것은 트러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스웨덴에서 1년간의 실무를 경험하기 위해 런던 리젠트 스트리트 폴리테크닉(현재의 웨스턴민스터 대학)을 떠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맞이하였다.

모국에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는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에 머물렀다. 그 후의 세월속에서 그는 「교육, 주거 그리고 도시생활에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전통적이면서 지역에 뿌리내린 장소」로부터 「국경을 넘어서 소비자사회」로의 커다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스킨은 특히 도시에 있어서의 전통과 문화적 연속성의 힘을 인식하였다.

피렌체에서의 도시프로젝트를 회고하면서 그

는 이렇게 말했다. “도시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창조물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목적을 지니고 걸으며, 생각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도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특히 일본이나 네덜란드에서 볼 수 있는 근대 도시의 혼란스런 상황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높은 건물은 청사나 교회 등 몇몇 고유한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업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아이크 라슨을 위한 기업프로젝트였던 해머스미스(Hammersmith)의 아크(Ark)의 프로젝트를 내게 보여주었을 때에도 그의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거대한 성공을 거둔 이 프로젝트의 어떤 디자인을 통하여 그는 ‘고층 건축’에 대한 대체물로 제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는 교통량이 많은 다층의 도로로 둘러싸인 부지를 위해 오피스의 아트리움속에 구멍이 있는 이탈리아풍의 촌락과 경사진 곡면을 가진 외관을 디자인하였다. 그것은 강력하고 대범한 어떤 디자인이었으며, 그의 주택작품들에서 나타났던 어프로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예를 들어 뉴캐슬 바이카의 집합주택에서는 일련의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건물의 새로운 구조에 적용한 건물을 디자인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여 주택지를 부활시켰다. 비록 그 새로운 구조체는 스케일에 있어서 다소 큰 것이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스케일로 나타나는 임팩트는 감소하였다. 그것은 어스킨이 지금도 환경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타협적이고도 감각적인 접근법의

훌륭한 예인 것이다.

작품 : 소개된 작품들은 어스킨의 자택(1963)을 비롯하여 가딜리우스 하우스(Gadelius House, 1961), 노드마크 하우스(Nordmark House, 1962) 등 주택작품들과 스톡홀름대학 캠퍼스(1974~1996) 건물들 등 공공건물에 이르기까지 그의 대표작들이 소개되었다. 그의 주택 작품들은 자연과 교감하고 있으며, 그의 철학대로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주택에서 묻어나오는 듯 하다. 또한 스톡홀름 대학의 여러 건물들은 20여 년간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면서 그의 건축이 현대적 재료와 젊은 파트너들의 에너지로 변모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노드마크 하우스(Nordmark House, 1962)



스톡홀름대학 캠퍼스(1974~1996)



가딜리우스 하우스(Gadelius House, 1961)

## 신건축

2005년 2월호

이번 호에  
서는 집합주  
택을 주제로  
한 특집과 더  
불어 2개의  
개별 프로젝  
트를 소개하  
였다. 소개된  
개별 프로젝



트는 일본다실의 현대적 재해석을 볼 수 있는 「헤이세이(平成)의 二疊台目」 프로젝트와 근미래주택의 모델을 제시한 실험주택인 「도요타 꿈의 주택 PAPI」이다. 특히 도요타의 실험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집합주택특집에서는 '다양화'를 주제로 최근 개발단지의 소형화, 유니트의 다양화, 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집합주택의 경향을 소개하였다.



헤이세이(平成)의 二疊台目(茶室)

### 헤이세이(平成)의 二疊台目(茶室)

2000년 초여름 일본 川越에 있는 한 사원의 경내에는 「헤이세이(平成)의 二疊台目」라 명명된 설계경기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불과 1평이 조금 넘는 규모의 다실 설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700명이 넘는 응모자가 모인 것은 절 안에 실제로 건설되는 다실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큰 이유는 일본의 다실 공간을 새로이 현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일본의 건축사들에게는 모두 욕심이 나는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 설계경기의 당선자는 요코가와 켄(横河 健)이었으며, 그의 작품은 요구된 면적의 다실 건물과 더불어 이에 연결된 작은 연못을 만들고, 이를 다시 기존의 세 그루의 나무와 함께 구성하여 실내화된 정원공간을 꾸민 것이었다. 그의 작품에서는 일본의 전통 다실건축의 미학과 현대건축의 기교가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전통적 소재와 현대의 소재를 함께 써가며 새로운 현대 일본 다실건축을 재해석 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 도요타 꿈의 주택 PAPI

자동차 메이커로 유명한 도요타가 후원하여 만든 꿈의 주택 「도요타 꿈의 주택 PAPI」가 완성되었다. 이 주택은 IT나 환경, 방법, 방화,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근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도요타 꿈의 주택 PAPI

주택으로서 토요타 흠이 실현한 실험주택이다. 이 꿈의 주택의 설계는 '풍요로운 2배, 환경부담 반감(半減)'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선구자이기도한 건축사 사카무라 켄(坂村 健)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동 차제조에 관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소재개발에서 주거환경의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응용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많은 관련 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신기술의 도입과 응용은 주택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택의 실내에는 각종 센서가 부착되어 생활하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주차장에는 도요타가 개발중인 전기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첨단 기술의 이용만이 아니다. 거주자의 만족을 위해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쓴 디테일의 해결, 서구식 주거와 일본의 전통식 주거가 혼합된 현대 일본 주택의 모델, 그 외에 주택에 결부된 오늘날의 여러 화두들에 대한 해법을 실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꿈의 실험주택은 「愛·地球박람회」의 개최에 맞추어 2005년 3월 25일부터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 특집 : 집합주택

이번 호의 특집은 집합주택이다. 집합주택에 대한 특집은 신건축지에 여러 차례 꾸며진 바 있었으나 이번처럼 명확한 주제 의식을 드러낸 경우도 드물다. 이번 집합주택의 화두는 '다양화'이다. 얼마전 집합주택의 소형화 경향을 다룬 집합주택 특집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대규모 공급위주의 집합주택에서 소규모의 다종다양한 집합주택의 공급으로 그 경향이 전환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규모의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최근 완공된 「東雲캐널코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택 유니트별 개성의 표출이나 다양화에 힘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특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좌담회의 주제 또한 '다양화하는 집합주택을 향하여'였으며, 'Renovation Style'이란 제목

으로 게재된 논문의 부제도 '집합주택의 유니트를 부지로 삼는다'이다. 이는 기존에 동일하게 공급되었던 집합주택의 획일적인 유니트들을 리노베이션을 통해 다양화시킨다는 요지이다. 이와 같은 주제 의식에 맞추어 소개된 작품들도 중소규모의 집합주택에서 다양한 규모와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유니트를 갖춘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3개의 개성있는 유니트타입을 갖춘 'NIF' (설계 : 스즈키 마코토 외), 도시의 작은 공지를 공유하는 배치를 보여준 '집합주택 20K' (설계 : 키타야마 코+아키텍처 워크샵), '초후의 아파트먼트' (설계 : 이시구로 유키), 직주일체(職住一體)의 도시형 집합주거를 제안한 '르 베인' (설계 : 우치다 시게루+studio 80) 등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FIZ', 'Liquid Court

House', '1227호실', '404호실' 등 집합주택 유니트의 리노베이션 사례들도 다루고 있다.

또한 이번 특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안도 타다오가 설계를 맡은 토준카이 아파트의 재건축 프로젝트 계획안이다. 토준카이 아오야마 아파트는 1920년대 말에 완성된 일본의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그 건축사적 가치 또한 높은 건물로, 이 건물들을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일어났으나, 결국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재건축 프로젝트의 설계를 맡은 안도 타다오가 기존 건물을 뛰어넘는 역할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번역 / 강상훈)



유니트타입을 갖춘 'NIF'



'Liquid Court House'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9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합/(042)841-5725 · 청양지역회합/(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3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 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